

편집인의 글

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8월 13일 개최된 임원진 워크샵에서 대한정신약물학회지를 보다 더 나은 학술지로 만들어 나가려는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역시 많은 회원들의 투고와 열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늘 확실한 결론이었습니다.

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여러 연구자의 업적이 이번 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논문 편수가 많지 않아 아쉽지만,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논문들이 독자의 열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이번 달의 서두는 <Tianeptine은 고유한 기전의 항우울제인가?>라는 종설로 시작하였습니다. Tianeptine이라는 매우 특이한 성상의 약물학적 특성과 임상적 적용을 잘 적용한 논문입니다. 기존의 약물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이 약물이 어떻게 효과가 나느냐,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간결하게 잘 정리한 논문이므로 이 약물에 관심있는 독자라면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<수면 질환에서의 Actigraphy 사용>이라는 종설은 그 동안 주로 약물학 위주의 논문을 게재하던 본 학술지에서는 잘 보지 못하던 영역입니다만은 뇌신경과학과 행동의 이해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넓히고자 하는 학술지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게재하였으므로 새로운 분야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일독해주십시오.

원저는 세 편이 게재되었습니다. <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퇴원 이후 외래 치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>은 자연 경과 집단에서의 관찰 연구로 실제 임상 상황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. <기질-정서 특성에서 본 강박증의 취약인자 및 단기 약물치료의 영향>은 생물학적 치료와 기질 및 정서라는 심리학적인 요인과의 연관관계를 살펴 본 논문으로 현대 정신의학의 흐름에 가장 충실한 내용일 것입니다. <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금연치료 결과에 대한 자가보고와 요증 코티닌 검사 간의 일치도>는 실제 왕성하게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의 금연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, 주관적으로 어떻게 살펴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주는 논문이며 향후 금연치료의 효과성 입증에 대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. 좋은 논문들이기는 하지만 다섯 편 밖에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아쉬우며 더 많은 투고를 기다리겠습니다.

오는 12월 17일 예년과 같이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대한정신약물학회 간행위원회 워크샵이 개최됩니다. 좋은 논문을 작성하고 동료들이 리뷰하고 학술지를 만들고 열독하게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실제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 투고자와 심사자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.

2010년이 되면서 대한정신약물학회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고 발간 주기도 변경하였습니다. 그 첫 번째 실험이었던 21권은 이 정도로 막을 내리고 22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풍성한 결과와 더 완벽한 서지 정보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독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가지고 다가가는 대한정신약물학회를 기대하여 주십시오.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심사위원, 편집위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.

2010년 10월 30일

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장 채 정 호